

의료소비자의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의료정보 탐색 행태에 관한 연구

정태영¹, 한재훈^{2*}

¹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 ²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학생

The Study on Health Care Consumer's Medical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 according to Chronic Disease

Tae-Young Jung¹, Jae-Hoon Han^{2*}

¹Senior Researcher, Veterans Health Services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²Studen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요약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의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정보탐색행태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6년 2월 9일에서 2월 11일까지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26.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총 24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성질환자들은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보다, 전문가 정보원과 경험적 정보원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질환과 관련해서는 영양 관리, 운동 관리 및 동일 질환자들의 사례를 많이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병원과 관련해서 만성질환자들은 대기시간과 진료비를 많이 알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만성질환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마케팅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의료소비자, 의료정보, 정보탐색, 만성질환, 의료마케팅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ealth care consumer's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 according to their presence of chronic diseases. For this purpose, 240 patients' data of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Seoul were collected by surveys from 9 February to 11 February 2016. For statistical analysis, we used SPSS Ver. 26.0.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square test showed that chronic patients used expert information sources and experiential information sources more than those without chronic diseases. Second, chronic patients were found to search nutrition management, exercise management, and patient case. Lastly, in the case of hospital-related searches,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searched more waiting time and medical expenses than those without chronic diseas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efficient information provision and establishment of marketing strategies reflecting information needs of health care consumers.

Key Words : Health Care Consumer, Medical Information,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 Chronic Diseases, Medical Marketing

1. 서론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은 의료영역의 독특한 특성이며, 의료시장의 실패를 야기하는 주요인이다[1]. 그러나 2000년에 접어들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의료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으면서 자신들의 진료문제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 동시에 국내 총 요양기관의 수는 최근 10년 간('08-'18) 꾸준히 증가해왔다. 종합병원은 2008년 268곳에서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Seoul St. Mary's Hospital and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 part of the 2016 Seoul St. Mary's Hospital Research and Development Shared Growth Support Project

*Corresponding Author : Jae-Hoon Han(jh.han531@gmail.com)

Received February 8, 2022

Accepted April 20, 2022

Revised March 2, 2022

Published April 28, 2022

2018년 302곳으로 늘었고, 병원은 2008년 1,088곳에서 2018년 1,471곳으로 증가하였다[3]. 김소연과 김선이[4]에 따르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공급자들은 소비자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비자의 정보탐색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의료소비자의 정보탐색행태는 의료소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진료과목, 병력 등 질병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1,4,5]. 따라서 이들의 정보탐색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이들의 정보욕구를 반영한 효율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한편, 현대의 질병구조는 과거 급성감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로 변모하고 있다. 만성질환이란 질병으로 발현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예방이 가능하지만 발현된 이후 치료되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건강문제를 의미한다[6]. 만성질환의 증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망의 81%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며, 사망원인 상위 10위 중 8개가 만성질환이다[7]. 2019년 만성질환 진료비는 34조 5,297억 원,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 1,110억 원의 약 40.1%에 달하고 있다[8]. 만성질환은 적절하게 관리하고 예방하면 추후에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9]. 최근 보건외로 패러다임은 사후적인 치료/수술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예방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만성질환자의 정보탐색행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 의료소비자의 정보탐색행태를 파악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의료소비자의 정보탐색행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이다. 본 연구수행을 위해 설문 문항의 적절성 및 타당성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가 2016년 1월 19일에서 2016년 1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조사는 2016년 2월 9일에서 2월

11일까지 3일간 수행되었다. 설문의 응답률을 높이고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수거한 설문지를 검토하여, 총 261부의 설문지 중 무응답이 많거나 혹은 확실적인 점수를 부여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하고 총 24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환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 방식을 이용하였고, 부득이하게 환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질의응답 혹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는 C대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KC15EISI0103]을 받았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수행되었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항목은 의료소비자의 정보탐색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소득 등 7문항이다[10,11], 의료정보원은 개인적 정보원, 경험적 정보원, 서적, 대중매체, 전문가 정보원, 온라인 정보원 등 5문항[5,12,13]이다. 질병관련 탐색내용은 질병의 기본정보, 치료/예방, 영양관리, 운동관리, 동일 질환자의 사례 등 5문항이며, 병원 관련 탐색내용은 병원의 평판, 의사의 진료경험/교육수준, 진료안전성 등 10개 문항이다[1,13].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Questionnaire items

Category	Items (No. of items)
Individual Characteristics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Job, Income, Chronic diseases (7)
medical information sources	Individual sources(acquaintance, friend, family, colleague, etc.) Books, Mass media(TV, radio), Specialist(doctor, Nurse, etc.) On-line(internet, smart phone) (5)
diseases-related searching contents	Basic information(definition, causes, etc.) Treatment/Prevention, Food & Nutrition management, Exercise management, Patient case (5)
hospital-related searching contents	Hospital reputation, Doctor's medical experiences/degree, Latest equipment, Safety of treatment, Amenity, Kindness of employees, Procedure convenience, Transport convenience, Waiting time, Medical expenses (10)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처리는 SPSS Ver. 26.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만성질환 유무와 의료정보원, 질병관련 탐색내용, 병원 관련 탐색내용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대상자 중 만성질환자는 154명(64.2%),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은 86명(35.8%)이다. 성별은 남성 136명(43.3%), 여성 104명(43.3%)이며, 연령은 50대가 81명(33.8%)으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 54명(22.5%)으로 그 뒤를 따랐다. 혼인상태는 혼인 중인 사람이 126명(52.5%), 이혼/사별/미혼인 사람은 114명(47.5%)이다. 학력은 대졸 128명(53.5%), 고졸 이하 58명(28.4%)이다. 직업은 임금근로자 142명(59.2%), 자영업자 43명(17.9%), 학생 등 고용상태가 아닌 사람이 55명(22.9%)이다. 소득은 300만원대가 100명(41.7%), 300만원 미만 91명(37.9%), 400만원 이상이 49명(20.4%)이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responders

Variable	Categories	Chronic diseases				Total (n=240)		p
		With		Without		n	%	
		n	%	n	%			
Gender	Male	88	57.1	48	55.8	136	56.7	0.822
	Female	66	42.9	38	44.2	104	43.3	
Age	~ 20s	6	3.9	12	14.0	18	7.5	0.000
	30s	12	7.8	30	34.9	42	17.5	
	40s	36	23.4	9	10.5	45	18.8	
	50s	59	38.3	22	25.6	81	33.8	
	60s ~	41	26.6	13	15.1	54	22.5	
Marital status	Married	82	53.2	44	51.2	126	52.5	0.788
	Unmarried (etc.)	72	46.8	42	48.8	114	47.5	
Education	~ High school	34	23.8	25	25.8	59	24.6	0.881
	Univ.(college)	76	53.1	52	53.6	128	53.5	
	Graduate ~	33	23.1	20	20.6	53	22.1	
Job	Wage&salary worker	85	55.2	57	66.3	142	59.2	0.070
	Self-employed	34	22.1	9	10.5	43	17.9	
	None(housewife, student, etc.)	35	22.7	20	23.3	55	22.9	
Income (ten thousand won)	~ 299	67	42.	24	29.6	91	37.9	0.082
	300 ~ 399	65	40.9	35	43.2	100	41.7	
	400 ~	27	17.0	22	27.2	49	20.4	

3.2 만성질환 유무와 의료정보원 이용의 연관성 분석

만성질환 유무와 의료소비자의 의료정보원 이용의 연관성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의료정보원 이용은 개인적 정보원(p=0.000)과 경험적 정보원(p=0.000), 전문가 정보원(p=0.000) 그리고 온라인(스마트폰) 정보원(p=0.000)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적정보원, 온라인 정보원보다 경험적 정보원 및 전문가 정보원을 이용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medical information sources and the chronic diseases group using Chi-square test

Variable	Categories	Chronic diseases				p
		With		Without		
		n	%	n	%	
Individual sources(acquaintance, family, friends etc.)	Yes	13	8.4	29	33.7	0.000
	No	141	91.6	57	66.3	
Books	Yes	29	18.8	17	19.8	0.494
	No	125	81.2	69	80.2	
Personal experience	Yes	144	93.5	28	32.6	0.000
	No	11	6.5	58	67.4	
Mass media (TV, radio)	Yes	5	3.2	6	7.0	0.208
	No	149	96.8	80	93.0	
Specialist (doctor, nurse, etc.)	Yes	99	64.3	24	27.9	0.000
	No	55	35.7	62	27.9	
On-line (Smart phone)	Yes	55	35.7	62	72.1	0.000
	No	99	64.3	24	27.9	

3.3 만성질환 유무와 질병 관련 탐색내용의 연관성 분석

만성질환 유무와 의료소비자의 질병 관련 탐색내용의 연관성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인 탐색내용은 영양관리(p=0.000), 운동법(p=0.000), 동일질환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의 사례(p=0.000)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영양관리, 운동법, 타 환자들의 사례를 탐색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높았다.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diseases related searching contents and the chronic diseases group using Chi-square test

Variable	Categories	Chronic diseases				p
		With		Without		
		n	%	n	%	
Basic information (definition Causes, Symptoms, etc.)	Yes	25	16.2	21	24.4	0.086
	No	129	83.9	65	75.6	
Treatment/Prevention	Yes	62	40.3	35	40.7	0.527
	No	92	59.7	51	59.3	
Nutrition management	Yes	111	72.1	41	47.7	0.000
	No	43	27.9	45	52.3	
Exercise	Yes	97	63.0	40	46.5	0.010
	No	57	37.0	46	53.5	
Patient case	Yes	106	68.8	38	44.2	0.000
	No	48	31.2	48	55.8	

3.4 만성질환 유무와 병원 관련 탐색내용의 연관성 분석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병원 관련 탐색내용의 연관성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병원의 평판(p<0.01), 의사의 진료경험/교육정도(p<0.01), 최신장비 보유여부(p<0.05), 직원의 친절도(p<0.05), 수술의 편리함(p<0.05), 대기시간(p<0.001), 진료비(p<0.01) 등의 탐색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병원 관련 탐색내용의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보다 모두 탐색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대기시간과 진료비는 만성질환자가 더 많이 탐색했다.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hospital-related searching contents and the chronic diseases group using Chi-square test

Variable	Categories	Chronic diseases				p
		With		Without		
		n	%	n	%	
Hospital reputation	Yes	12	7.8	18	20.9	0.004
	No	142	92.2	68	79.1	
Doctor's medical experiences/degree	Yes	69	44.8	57	66.3	0.001
	No	85	55.2	29	33.7	
Safety of treatment	Yes	74	48.1	55	64.0	0.012
	No	80	51.9	31	36.0	
Latest equipment	Yes	40	26.0	30	34.9	0.096
	No	114	74.0	56	65.1	

Amenity	Yes	88	57.1	58	67.4	0.076
	No	66	42.9	28	32.6	
Kindness of employees	Yes	85	55.2	61	70.9	0.011
	No	69	44.8	25	29.1	
Procedure convenience	Yes	76	49.4	61	70.9	0.001
	No	78	50.6	25	29.1	
Transport convenience	Yes	56	36.4	38	44.2	0.146
	No	98	63.6	48	55.8	
Waiting time	Yes	94	61.0	31	36.0	0.000
	No	60	39.0	55	64.0	
Medical expenses	Yes	86	55.8	29	33.7	0.001
	No	68	44.2	57	66.3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유무와 의료소비자의 정보원 이용, 질병 관련 탐색내용 및 병원 관련 탐색내용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정보탐색행태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정보원 이용을 보면, 만성질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전문가 정보원을 이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이환기간이 길며, 완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의료소비자들이 초기에 주로 이용하는 개인적 정보원보다 본인의 질병 치료에 적합하고 보다 전문적인 정보원을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결과는 질병이 확인되는 순간 연령과 상관없이 치료과정 중에는 전문의료인이 가장 주요한 정보획득원이 된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14]. 또한 만성질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경험적 정보원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의료서비스 구매 시 본인의 경험이 중요한 정보원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5].

한편, 온라인 정보원의 경우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의 이용 비율이 만성질환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만성질환자에 노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고연령대일수록 온라인 정보 탐색 정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1,11].

만성질환 유무와 의료소비자의 질병 관련 탐색내용 간의 연관성 분석 결과, 만성질환자들은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영양관리, 운동법을 더욱 많이 탐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운동과 식이를 포함하여 음주와

흡연을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통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많은 문헌에서 건강증진행위와 만성질환의 관계가 입증되고 있다[15-17]. 따라서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질병치료와 예방관리과 관련된 정보들을 더욱 많이 탐색하고 있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질환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사례들 많이 탐색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병원 관련 탐색내용 중 만성질환자들은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보다 진료비 관련 정보를 탐색한 비율이 높았다. 김창훈 등[18]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이환 수 증가에 따라 진료비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결과는 본인들의 질환 및 비용에 대해 지각된 위험이 있을 때 의료소비자들은 정보탐색을 통해 이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1]를 지지한다.

대기시간 또한 만성질환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탐색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진료 대기시간은 의료소비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13]. 특히, 복합만성질환들의 경우 다양한 진료과를 방문해야 하는 만큼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보다 사전에 병원 진료 대기시간을 더욱 많이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병원의 평판, 의사의 진료경험/교육정도, 진료의 안전성, 직원의 친절도, 수속의 편리함 등은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만성질환자들보다 더 많이 탐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숙 등[19]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정기적 의료이용을 할 확률이 높다. 이는 만성질환자들이 합병증을 포함하여 동반상병이 많을수록 질환에 대한 위험요인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과거 본인의 의료서비스 경험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구매의 특성상 만성질환자들은 병원을 탐색하고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인들인 상기 탐색내용을 이미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만큼 상대적으로 그 외의 요인들을 더 많이 탐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 하에 수행되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서울에 소재한 일개 대학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했으므로 본 연구 결과는 전체 의료소비자의 정보탐색행태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의료소비자의 정보탐색행태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 구매에 있어서 갖게 되는

지각된 위험, 생활양식, 병원 방문목적(치료, 수술) 중별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의 영향을 받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중 연령은 만성질환 유무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만성질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선행연구[1]를 보면 연령에 따른 정보탐색행태 중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연령이 많은 집단이 젊은 층에 비해 온라인 정보탐색을 적게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온라인 정보탐색의 경우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만성질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비교를 위해 만성질환 유무를 제외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매칭하는 성향점수매칭(PSM) 등의 방법이 있다. PSM은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작위 배정의 적용이 어려운 연구 등과 같이 준실험에 해당되는 연구방법에서 선택편향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된다[20]. 다만 성향점수매칭의 경우 PSM 과정에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고 버려지는 표본의 수가 상당히 존재하므로, 발생율이 낮거나 표본수가 작은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다. 또한 상당히 보수적인 방법(conservative method)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편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이외의 제한점들로는 관찰되지 않은 공변량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하고, 많은 표본수를 요구하거나, 처치와 관련된 공변량을 대상으로 조정하나 그 공변량이 결과변수에 전혀 관련이 없거나 혹은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분석의 결과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21]. 본 연구는 만성질환 유무와 의료소비자의 정보원 이용, 질병 관련 탐색내용 및 병원 관련 탐색내용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교차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추후 후속연구 수행 시 보다 많은 표본수를 대상으로 하여 처치군과 대조군 간의 매칭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별 의료기관의 특성과 병원방문목적, 라이프스타일 등 정보탐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변수들을 반영하여 의료소비자의 정보탐색행태를 분석하길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만성질환 유무에 따른 의료소

비자들의 정보탐색행태를 분석하였다. 만성질환자들은 본인의 경험과 전문적 정보원을 주로 이용하여 의료정보를 탐색하였다. 주로 알아본 질병 관련 내용은 운동법, 영양관리, 동일질환자들의 사례이며, 병원 관련해서는 진료비와 대기시간을 많이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만성질환 유무에 초점을 맞춰 의료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행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의료정보 제공과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음에 그 의미를 둔다.

REFERENCES

- [1] T. Y. Jung, K. Y. M. Kim, T. Jung. (2013).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 for Medical Institutions of Spine Patients and Searching Outcomes,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3(3), 266-280.
DOI : 10.4332/KJHPA.2013.23.3.266
- [2] D. S. Han. (2005). *Exploration of Health Care System*. Seoul : Hanhakmunhwa.
- [3]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n. d.). *Health Bigdata Hub* (Online). www.hira.or.kr
- [4] S. Y. Kim & S. Y. Kim. (2012). A study on Medical Consumer's Lifestyle Patterns and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5(2), 75-97.
DOI : 10.17053/jcc.2012.15.2.005
- [5] Y. M. Chae, S. H. Lee, W. H. Cho. (2001).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 of Health Care Consumers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4(4), 389-398.
- [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Preventing chronic diseases: a vital investment*.
- [7] Statistics Korea. (2020). *Causes of Death Statistics in 2019*.
- [8]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0).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in 2019*.
- [9] P. Asaria, D. Chisholm, C. Mathers, M. Ezzati & R. Beaglehole. (2007). Chronic disease prevention: health effects and financial costs of strategies to reduce salt intake and control tobacco use. *Lancet*, 370(9604), 2044-2053.
DOI : 10.1016/S0140-6736(07)61698-5
- [10] M. J. Jun. (2017). The Convergence Impact of Dental information Searching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97-107.
DOI : 10.15207/JKCS.2017.8.6.097
- [11] C. H. Ahn, J. H. Ha & S. Y. Lee. (2013). A study on medical consumers' consumption value and online information search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18(2), 57-80.
- [12] Y. M. Chae & S. H. Lee. (2010). The Effects of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 and Perceived risk on Consumer Satisfaction in Medical Service Consumer, *Korean J.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20(3), 138-156.
DOI : 10.4332/KJHPA.2010.20.3.138
- [13] H. J. Lee, J. W. Lee & S. J. Hong. (2009). The Study on Selection Factors of Ophthalmic Medical Institute and Habits of Information Searching,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3(1), 47-58.
- [14] W. S. Jung, H. G. Kang, S. M. Han & E. H. Kim. (2021). Recognition and use of health information for preliminary elderly and elderly peopl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6), 419-427. DOI : 10.14400/JDC.2021.19.6.419
- [15]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 Formal meeting of Member States to conclude the work on the comprehensive global monitoring framework, including indicators, and a set of voluntary global target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 Geneva, WHO Press.
- [16] S. J. Lee & C. W. Chung. (2014) Health behaviors and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chronic kidney disease in Korean patients with diabetes: The four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Asian Nursing Research*, 8(1), 8-14. DOI : 10.1016/j.anr.2013.11.001
- [17] J. M. Park. (2014). Chronic diseases, health status and health service utilization among Koreans, *Health*, 6, 2286-2293.
DOI : 10.4236/health.2014.616263
- [18] C. H. Kim, I. K. Hwang & W. S. Yoo. (2014). The Common Patterns of Multimorbidity and Its Impact on Healthcare Cost in Korea,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4(3), 219-227.
DOI : 10.4332/KJHPA.2014.24.3.219
- [19] Y. S. Seo, J. H. Park & J. H. Lim. (2014). Factors Affecting Regular Medical Services Utilization of Chronic Disease Patients: Focusing on th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Hyperlipidemia,
Korean J Health Educ Promot, 31(3), 27-37.
 DOI : 10.14400/JDC.2014.12.7.327

- [20] A. G. Day. (2015), Why the propensity for propensity scores? *Crit Care Med*, 43, 2024-2026.
 DOI : 10.1097/CCM.0000000000001175.
- [21] G. King & R. Nielsen. (2022) *Why propensity scores should not be used for matching* (Online).
<http://gking.harvard.edu/files/gking/files/psnot.pdf>.

정 태 영(Tae-Young Jung)

[정회원]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보건학사)
- 2010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료경영학과(의료경영학석사)
- 2010년 8월 ~ 2013년 1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임연구원

- 2017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보건학박사)
- 2020년 7월 ~ 현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선임연구원
- 관심분야 : 보건정책관리, 보훈의료, 의료정보
- E-Mail : tyjung@korea.ac.kr

한 재 훈(Jae-hoon Han)

[정회원]



- 2008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보건학사)
- 2010년 8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료경영학과(의료경영학석사)
- 2010년 8월 ~ 현재 : 가톨릭중앙의료원

- 2015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보건정책관리, 의료경영전략
- E-Mail : jh.han531@gmail.com